

전승 취약한 전통공예,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예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 국제컨퍼런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오는 17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에서 전통공예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6 무형유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무형유산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형유산을 보호하는데 국제적으로 선도국 역할을 하고 현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고자 하는 회의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국가무형문화재 135개 종목 중 51개 종목(37.7%), 전승 취약종목 38개 중 33개(82.1%)를 차지하는 공예 분야에 대한 정책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영국·이탈리아·일본 등 4개국 16명의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통공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박영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먼저 전통공예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한국 전통공예 문화 산업의 정책 현황과 무형문화재 정책 방향'(이원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언과 한국 전통공예 지원 방안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해외 공예산업의 지원정책'(로지 그린리, 영국 공예청

장) 발표가 펼쳐진다. '전통공예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전통문화'의 개념과 공예에 있어 '전통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담론인 '전통공예문화의 정체성과 계승방안'(아미자키 쓰요시, 일본 카나자와 미술공예대학) 발표와 공예산업 클러스터의 구체적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해외 지역공동체 공예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사례를 통해 본 전통공예 활성화 방안'(안드레아 산틀리니, 이탈리아 전통공예협회) 발표가 이어진다. '전통기술과 공예품의 융복합 활성화 방안'(나건, 홍익대학교)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네트워크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내의 전통 공예품 인증제도'를 주제로 한 3부에서는 올해 제정된 무형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전승공예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처음 시행되는 인증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이 논의된다. '전통공예품의 인증제도와 산업화 방안'(오영택, 전주대학교), '해외 전통공예품의 인증제도 운영 실태'(기무라 히로키, 일본 덴리대학) 등 국내외 사례도 공유된다.

문의 063)280-1513.

/정해은 기자



전북CBS, 이역만리에서 사랑 전파하는

선교사의 사명과 애환 '순종'에 녹여내

전북CBS(본부장 송정태)가 이역만리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사명과 애환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순종'을 오는 17일 전주교사·전주효자·군산·익산·정읍 CGV에서 상영한다.

순종은 내전과 가난의 상처로 질질감에 빠져있는 구간다 당기디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김은혜 선교사와 레비는 난민촌에 스며들어 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김영화 선교사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진솔하게 풀어낸다. '우리는 자와 함께 울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행하는 선교사들의 순종적 삶과 그 의미를 되새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부드럽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CGM가수 송정미의 '순종'을 비롯한 OST는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키고 있다. 또 배우 최수종과 최강희가 감정을 억제하며 잔잔하게 선교사와 아이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레이션을 영화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CBS 관계자는 "낮선 타국에서 고통을 함께 하는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평소 잊고 있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순종'은 각 시군 작은영화관에서 개봉하며 상영권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문의 전북CBS 문화사업국 063)256-1020. /정해은 기자

최명희문학관 · 전북작가회 작가와의 만남 개최

18일 오후 7시 세미나실

최명희문학관(관장 장성수)과 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는 최근 첫 소설집을 낸 김지운·차선우 소설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 오는 18일 오후 7시 최명희문학관 세미나실.

소설집 '누가 무화과나무 꽃을 보았나'를 낸 김지운 소설가는 부안 출신으로 1985년 한국수필에서 수필, 1989년 우리문학에서 소설로 등단했으며, 산문집 '그대에게 가는 길엔 언제나 비림이 불고' 등을 냈다. 또 소설집 '우리는 많은 것을 땅에 묻는다'를 낸 차선우 소설가는 익산 출신으로 2011년 내일을 여는 작가를 통해 등단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복권기금 문화나



차선우

김지운

눔(슈컬채비즈 글로벌 등)과 함께 하는 이날 행사에는 소설집에 대한 장미리 소설가와 문신 문화평론가의 발제, 동료문학인들의 소설 낭독 및 작가와의 대화 시간으로 꾸며진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63-284-0570.

/정해은 기자

"동요와 가곡,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불러요"

군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동요와 가곡의 만남'

17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합창단과 시민 하나돼"

군산시립합창단(단장 김양원 부시장이)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88회 정기연주회 '동요&가곡 함께 부르기 프로젝트'를 펼친다.

이번 연주회는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에 발맞춰 박지훈 지휘자의 지휘로 동요와 가곡 등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신작 가곡 '꿈으로 오던 한사람', 고은 시인의 시로 잘 알려진 '잠', '산들바람' 등을 연주하고, 군산부설초등학교 <푸른소리창창단>과 군산사해초등학교 <그린내대중창단>이 특별출연해 '꿈을 향해', '웅기가 뚝뚝' 등 관객들에게 신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2부에서는 봉숭아 학당을 모티브로 관객과 합창단이 동요와 가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으로, '과수원길', '고향의 봄', '남이 오시는지', '오빠생각', '섬집아가' 등을 시립교향악단의 현악반주에 맞춰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은 5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공연티켓은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매를 하거나 현장티켓은 공연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 방식으로 배부한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합창단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한층 더 가까워지는 즐겁고



군산시립합창단(단장 김양원 부시장이) 오는 17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88회 정기연주회 '동요 가곡 함께 부르기 프로젝트'를 펼친다. 이번 공연은 5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공연티켓은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매를 하거나 현장티켓은 공연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고운 목소리가 전하는 행복과 감동을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클래식과 무용의 만남' 판타지 댄스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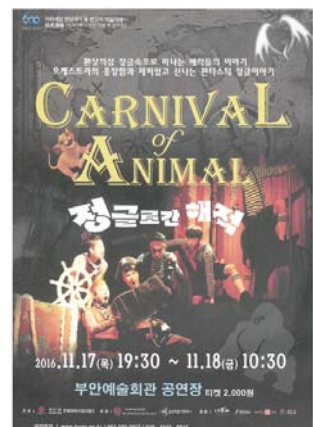
'CARNIVAL of ANIMAL'

정글로 간 해적' 공연 개최

클래식과 무용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공연인 판타지 댄스컬 'CARNIVAL of ANIMAL' 정글로 간 해적'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과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북예술문화원과 포스댄스컴퍼니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하는 공연으로 큰일나 무 팔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포스댄스컴퍼니의 합작 무대로 구성된다.

공연은 환상의 섬 '보라보라섬'에서 천년에 한번 봉인이 풀리는 황금사자상을 손에 넣으려고 보물을 찾아 떠나는 해적



과 황금사자상을 지키려는 동물들 간의 재미와 감동을 다루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16일>



▷쥐띠

46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에 주의하라.
60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타인에게 의지하라.
72년생: 동기에서 서로 원할 수 있는 운이니 술까지 말라.
84년생: 다른 사람과의 사비수가 있으니 자중하며 양보하라.



▷용띠

52년생: 성급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면 후회할 상황이 발생.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은 결실.
76년생: 주위의 질투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
88년생: 뒷 사람의 인정을 받는 운이니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라.



▷원숭이띠

55년생: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 급히 먹은 음식에 제한.
69년생: 대외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좋다.
81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하라.
93년생: 동기적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



▷소띠

49년생: 큰 움직임인 피한다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매사에 주의하면 결과는 나쁘지 않다.
73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뱀띠

53년생: 계획의 변동, 변화는 실패를 불러오니 주의하라.
65년생: 결과는 좋다. 당차게 행동하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는다.
77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9년생: 늦은 오후에는 운이 막히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



▷뱀띠

5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
93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작하면 좋은 결실.



▷호랑이띠

50년생: 매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운.
62년생: 시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사게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4년생: 급하게 결정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8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



▷말띠

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욕심은 금물이다.
66년생: 말과 행동에 주의를 요하는 운이니 생각하고 행동하라.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이 좋은 날이다. 동기간과 약속을 만들라.
90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개띠

43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심한 운이니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겠다.
55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라.
67년생: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79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무리는 금물.



▷토끼띠

51년생: 크고 멀리 보아야 하는 운이다. 긍정적인 마인드.
63년생: 손재수가 있는 운이니 타인과의 화합에는 좋은 날이다.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



▷양띠

56년생: 매사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8년생: 망설이던 기회를 놓치지 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80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혼자 해결해 나가면 결실.
92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활기탈부 허다가는 사비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으니 실수를 주의하라.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이니 지나친 호의를 주의.
71년생: 결의 모습보다는 내실에 치중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주의.